

“작업 프로세스 개선”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다!!! (일반철도 전차선로 시공프로세스 개선)

서부권PM팀 박병곤

1. 추진배경

2004년 이후 개통사업 합동점검시 보완사항이 전체 840건 중 전차선 분야가 248건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준의 보완요청을 받았으며 개통일 연기 및 인계인수 지연 등으로 공단 이미지에 악영향 발생하므로 전차선분야 시공 및 품질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선행공정 인계인수 지연으로 인한 전차선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전철설비 시공품질 저하의 원인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사고의 발생은 전체 19건 중 전차선 분야 9건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준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특히, 전철화가 마무리되는 개통년도에 집중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2. 추진목표와 범위는?

일반철도의 건설사업에서 전차선 공사의 시공능력이 복선을 기준하여 일일 150m로 추진중에 있으나, 촉박한 공사일정으로 공기지연의 사례가 있어 고속철도 전차선 공사의 적용 속도인 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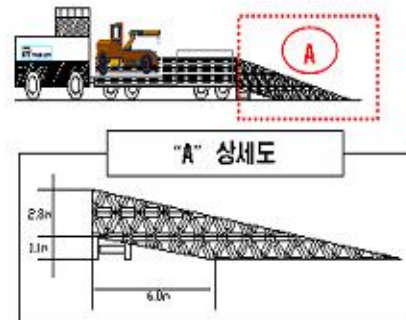
3) 전선 가선차 드럼축 교체시간을 단축하다.

시공장비인 전선 가선차의 드럼축을 2.5톤용에서 4.3톤용으로 개선하여 전선 일반구간 2,000~2,800m마다 전선드럼을 교체하여 교체시간이 2,000m 가선시 20분이 단축되게 하였고, 드럼 교체 인력도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4) 차량인상용 발판을 설치하다.

; 기존선 전철화 구간은 소화물을 취급하는 작업대를 이용하여 자재를 이송하던 것을 인상용 발판을 설치하여 시공전철장비의 이동거리와 작업 준비시간을 단축(기계장비 활용)하고 크레인 전철시공장비를 대체하는 육상용 크레인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4. 시공속도 향상으로 22억원을 절감하다.

2008년 당해연도에 평균 낙찰율 82% 적용시 약 **22억원**의 유형효과가 발생하며, 무형효과로는 일반철도 전차선로 시공프로세스 개선으로 일일 시공속도가 200m로 향상되고 효율적인 장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능력 향상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리고 공사기간(개통일)의 준수로 인한 **대국민과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효과라 할 수 있다.

